

PA-101

**충남평야지 ‘빠르미’ 품종을 이용한 2기작 가능성 연구**

윤여태<sup>1\*</sup>, 정종태<sup>1</sup>, 최현구<sup>1</sup>, 이동재<sup>1</sup>, 박인희<sup>1</sup>

<sup>1</sup>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서론]**

빠르미는 충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극조생 벼 품종이다. 빠르미는 조기재배시 6월 23일경 출수가 되기 때문에 7월말에서 8월초에 수확이 가능하므로 조기재배 수확 후 벼를 한번 더 재배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빠르미 조기재배 수확 후 다시 이앙하여 이기작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충남 예산의 시험포장에서 신품종 ‘빠르미’ 의 이기작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조기재배를 위해 하우스에서 20일 육묘한 모를 4월 17일에 30×14cm 간격으로 5~7본씩 손이앙하였고 시비량은 N-P-K=9-4.5-5.7kg/10a 로 처리하였다. 벼를 수확 한 후 7월 30일 동일한 포장에 조기재배와 동일한 방식으로 모를 손이앙하고 포장을 관리하였다.

**[결과 및 고찰]**

극조생종 빠르미는 생육기간이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 중 가장 짧기 때문에 이기작 가능성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빠르미 품종 조기재배시 출수기는 7월 22일로 이앙 후 출수기까지 66일이 소요되었다. 수확시기는 출수 후 약 35일 뒤인 7월 27일 벼 이삭이 80% 이상 등숙되어 수확이 가능하였다. 벼를 수확 후 7월 30일 동일한 시험포장에 벼를 손이앙 한 결과 출수기는 9월 2일로 출수소요일수는 33일이었으며, 충남의 안전출수한계기인 8월 31일보다 약간 늦었지만 등숙이 이루어지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다. 빠르미를 두 번째 재배시 짧은 생육기간으로 인해 불시출수와 영양생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첫 번째 재배와 비교시 간장과 수장은 각각 7.8cm, 1.6cm 길었고 수수는 0.3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결과를 보아 충남평야지에서 빠르미 품종을 활용한 이기작재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량과 품질에 대한 연구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Corresponding author: Tel. 041-635-6052, E-mail. yotai@korea.kr